

【 2017.2.2(목) 강원일보 】



태성종합건설 수주기원제 흥천 태성종합건설(대표:오인철 건설협회도회장)은 1일 태백산 천제단에서 올해 수주목표 초과달성과 현장 무재해를 기원하는 수주기원제를 진행했다.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2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도회 회장실에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제1

차 정기회의를 개최.

# 도, 올해 지방도 사업 1162억원 투입

## 연내 개통 가능 구간 등 집중

강원도는 올해 지방도 사업에 총 1162억원을 투입해 연말 개통이 가능한 구간과 국가기간교통망 연결도로 및 교통불편 구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인

금당~상안미구간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또 강촌~창촌, 굴업~화전, 지르매재, 문곡~창리 구간의 4개 터널, 교량 시공사업에 300억원이 배정됐다.

철원 고석정~문혜, 화지~고석정, 지내~고성, 봉오~파포, 월명터널 등 5개 노선의 강원북부권 접근 도로망 확충사업

에 224억원, 사천~연곡, 자은~도관, 생곡지구, 무이지구 등 비포장 위험도로 구간 구조개선 4개 사업에 16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면은IC~보광, 간평~횡계IC, 월정3거리~차항 구간 등 2018평창동계 올림픽 접근도로 3개 노선에 352억원을 투입해 올해 모두 완공할 계획이다. 동서평화녹색도로사업으로 추진중인 고방산 접근로와 서화지구에는 60억원을 투입, 공사를 시작한다. 백오인

## 사 설

### ‘지역경제 활성화법’ 반드시 관철을

-지역 화폐법·재투자법·은행설립법 등 제정 노력 만시지탄

강원도가 경제 관련 대응 태세 또는 경제 기획의 실조로 인해 지역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는 형국임을 이제야 깨달았는가. 올 초 도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제정을 천명하고 나섰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강원도의 경제 현실을 살필 때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난 사실을 주목해 보면 그야말로 예전에 이미 제정돼야 했던 법안들이다. 강원도 자금의 역외 유출이 201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조6천억원 증가했다. 외지 건설사·은행·대형 유통업체·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역외로 나간 돈이 무려 5조5천억 원이나 된다. 도가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등 지출액이 12조9천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온라인 쇼핑으로 7천억 원을 유출한 가운데 신용카드 수도권 비중이 68.1%로 소비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의 역전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이에 대한 고민 끝에 얻어낸 결론이 ‘지역경제 3대 법안’의 입법 추진이다. 우선 ‘지역화폐법’으로 지역 상품권을 화폐와 같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 한다. 또 ‘지역재투자법’은 기업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선진국에선 실현해내는 법안들이다.

그리고 도는 지역 순환형 금융 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한다는 그야말로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2015년 말 기준 예금은행의 여수신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1.1%와 1.3%로 1997년 지방은행 존재 당시의 1.9%와 1.7%에 못미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는 1999년 지역은행인 강원은행이 사라지던 그때에 이미 염려하던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제 3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이제야 강원경제 관련 중대사들이 거론되는 현실이 그 시기의 미끄러짐뿐 아니라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에서 차라리 개탄스럽다는 얘기다.

3대 경제법안을 실현시키자면 도민의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하며, 그러자면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 및 관점의 도민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테스크포스도 구성하고, 무엇보다 강원도의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선언하고 천명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자리를 건다는 자세로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원경제 패러다임을 온전히 바꾸길 기대한다.

# 올 고속도 물량 6.3兆... 수주긱간 채울 신규공사 늘어

도공 발주계획... 이달말 '1조540억' 강진~광주 6개 공구 스타트

올해 공공건설 시장에서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큰 벼락이 될 전망이다.

1일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2017년 발주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공사 발주규모는 총 6조3782억원(43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6조8618억원(483건) 대비 소폭 줄어든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건설업계의 수주고 확보와 직결되는 대형 공사는 오히려 늘었다. 240억원 이상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는 모두 6조3261억원(31건)으로, 전년의 6조2030억원(30건)과 비교해 1200억원 정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6개 공구)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9개 공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8개 공구) 등이 연내 낙찰사를 선정하고 첫삽을 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본 고속도로 유지·보수 물량이 줄면서 총 건설공사 발주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신규 고속도로 물량이 늘어 대형 건설공사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도로 공사의 발주 규모는 최근 올해 발주계획을 내놓은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기업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이라 눈길을 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조8000억원 정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조4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LH(한국도

지주택공사)는 내달 중순에 올해 발주계획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건설 시장에서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큰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공 시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로·주택이 주도하고 철도·수시설이 뒤따르는 형국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 주택 시장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업계의 공공 시장 의존도는 높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발주의 스타트는 '강진~광주 6개 공구(1·2·3·5·6·7공구)'가 꼽힌다. 총 1조540억원 규모로, 모두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르면 이달 말에 입찰공고가 유력하다.

정석한기자 jobize@

## 뉴스 돌보기 올 고속도로 물량 6.3兆... 신규공사 증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설공사 발주금액만 해도 총 6조3782억원(437건)에 달한다. 아직까지 발주계획을 내놓지 않은 한국도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면 다른 발주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이 중 24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는 모두 6조3261억원(31건)으로, 전체의 99%를 상회할 정도로 많다. 이 물량을 놓고 올해 건설업계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된다. <표 참조>

# '강진~광주' 등 중심제가 60% 2.1兆 '세종~포천' 최대 격전지

고속도로 발주의 포문은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6개 공구)'가 연다. 모두 중심제 대상공사다. 추정금액(도금액+관급자재액) 기준 1조540억원 규모다. 이 공사는 광주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강진군 선전면 명산리 51.08km에 총 4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 단일공사 최대어 '관심'

### 1.6조 규모 새만금~전주 8개공구 연내 착공 추진

본래 7개 공구로 이뤄졌지만 4공구의 경우 지난해 말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해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이다. 도공은 4공구를 제외한 6개 공구를 이르면 이달 말에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현재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공구별 공사비와 구간을 확정하고 있다. 이달 중순 재무처에 발주 의뢰해 이달 말 입찰공고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통은 영동선 안산휴게소 부지조성공사(392억원), 시화MTV구간 및 시화

### 한국도로공사 발주할 2017년 주요 건설공사

건설공사명	발주시기	입찰방법	추정금액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2월	종합심사 낙찰제	1959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			1758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1599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5공구			1744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6공구			1337억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7공구			2140억원
영동선 안산휴게소 부지조성공사			3월
시화MTV구간 및 시화JCT 건설공사	4월		1000억원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7월		3718억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	9월	미정	9283억원
세종~포천(안성~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9개 공구)	10월	종합심사 낙찰제	2조1887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8개 공구)	12월	미정	1조6440억원

JCT 건설공사(1000억원),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3718억원) 등이 이어 받는다. 특히 3000억원을 상회하는 경부선 기흥나들목 개량공사는 단일 건설공사로서는 최대어여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하반기에는 주요 물량의 릴레이 발주가 예상된다.

9283억원 규모의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5개 공구)'는 김포시 통진읍 수창2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5.4km 구간에 총 4차선을 짓는 게 핵심이다. 도공은 상반기 내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2조1887억원 규모의 '세종~포천(안

성~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9개 공구)'는 이미 중심제로 추진을 확정해 놓은 상태. 무려 9개 공구에 달하는 초대형 일괄이라 하반기 건설업체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1조6440억원 규모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8개 공구)'도 가능하면 연내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총 발주금액(국제입찰 대상공사 기준) 중 60% 정도인 3조7538억원을 중심제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40%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총 2474억원(357건) 규모의 설계용역도 연내 발주하고, 총 4646억원(591건) 규모의 물품·자재도 구매할 계획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 작년 건설수주 145兆 ‘역대최대’... 민간·공공 쌍끌이 효과

(통계청 집계)

지난해 건설수주가 사상 처음으로 총 145조원(통계청 기준)을 넘어선다. 이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기성도 107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수주(경상)는 총 145조1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연간 최대치였던 2015년(134조3380억원)보다도 1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조사에서 제외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별도 조사하는 수주물량까지 더하면 총 16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조사 기준, 건설수주는 지난 2007년 112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금융위기 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0년에는 89조8000억원까지 주저앉았다.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

4분기에만 45조8000억 ‘상저하고’ 흐름 이어가  
건축부문 호조세 뚜렷  
건설기성도 107조 넘어

나 2013년에는 결국 77조8000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2015년 급반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부동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건축 및 민간부문의 쌍끌이 효과였다. 지난해에도 건축 및 민간부문이 앞서서 끌고 공공부문이 뒤를 받치면서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공종별 수주규모를 보면, 건축부문 수주가 114조5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00조990억원) 대비 14.4% 이상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그러나 토목수주 규모는 2015년 34조239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190억원 규모로 10.6%나 급감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부문 수주가 다시 한번 100조원을 돌파, 전년 대비 4.6% 증가한 107조183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또한 34조233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0%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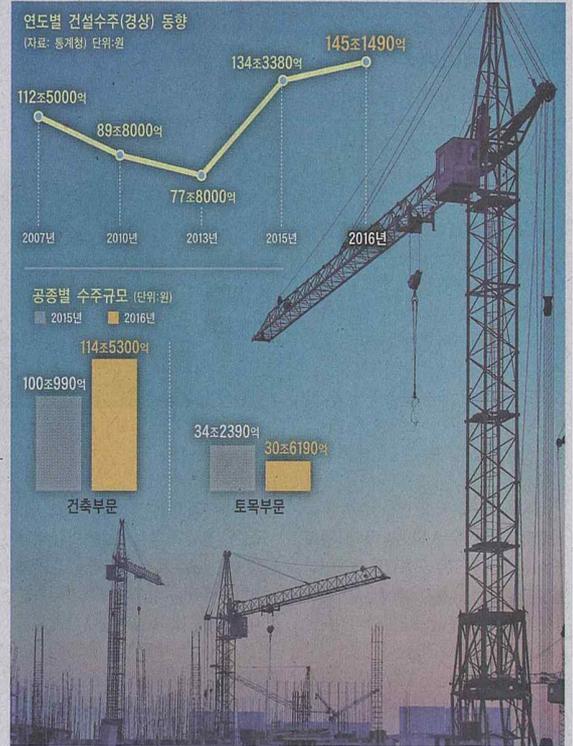
지난해 건설수주는 ‘상저하고’가 뚜렷했다. 1분기 28조9000억원, 2분기 32조9000억원 등 상반기에는 61조9190억원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3분기 37조4000억원, 4분기 45조8000억원 등 83조2310억원으로 확대됐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마찬가지로 동행지표라 할 수 있는 건설기성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대비 17.5%나 늘어난 107조735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07년 101조8897억원을 가볍히 넘어섰다.

공종별로는 역시 주택과 상가 등 건축부문의 호조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건축부문 기성은 74조2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나 증가했다. 반면 토목부문 기성은 33조5130억원 규모로 3.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방송권기자 skbong@



## ‘수주절벽’ 우려 목소리도 커져

## 역대최대 수주실적에도 ‘토목’은 급감 경기민감 건축부문 위축맨 시장 급랭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가 기록됐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토목부문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변화에 민감한 건축 및 민간부문 수주비중이 전체의 80%에 육박해 부동산경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시장이 빠르게 식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확대 SOC 등 건설투자 늘리고 적극적 민자 유인책 나와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수주(경상)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증가율(전년 대비)은 둔화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증가율은 16.3%에 달했고, 2015년에는 무려 48.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지난해에는 8.0% 수준에 그쳤다.

앞서 2015년 증가율이 너무 높았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건축·토목·민간 등 부문별 증가율은 모두 큰폭으로 둔화되거나 하락했다.

특히 토목부문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수주액 감소로 인한 마이너스(-)로 돌아서 증가율은 -10.6%를 기록했다.

년(74.5%)보다 4.4%p가량 늘었고, 지난 2014년에 비해서는 약 5.4%p나 증가했다.

또 발주자별 수주규모를 봐도 건축공사가 대부분인 민간부문이 전체의 73.8% 이상을 차지하며 공공부문을 압도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와 전문가들은 경기변화에 민감한 건축 및 민간부문 공사발주가 위축될 경우 건설시장 전반이 급속도로 침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및 금융(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수주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주절벽’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가 기록됐지만 올해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지는 의문”이라며 “이는 경기변화에 민감한 건축 및 민간부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및 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및 토목공사 발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올해 건설수주는 큰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부동산 등 주택시장의 연착륙과 더불어 지속적인 SOC 사업 발굴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